

朝鮮朝 中期 선비들의 詩意識

- 朱子詩의 評釋을 중심으로 -

李 敏 弘*

목 차

1. 朝鮮朝 開國과 性理學
2. 朝鮮朝 선비들의 隱居와 朱子詩
3. 武夷權歌와 載道論
 - 1) 虹橋一斷의 해석 視角
 - 2) 架壑船의 寓意
4. 結言

1. 朝鮮朝 開國과 性理學

단기 3725년 서기 1392년에 開國한 朝鮮朝는 당시 세계에서 문물이 가장 발달한 진보적 국가였고,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까지 약 2세기동안 우리나라는 미증유의 번영과 태평을 누렸다. 조선조는 여타의 역대 왕조와 달리 개국초부터 국가 통치 이데올로기인 國是를 설정하고 출발한 체제였다. 고려조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단점은 버리고 장점은 과감하게 취하여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한 것이다. 고려조의 단점 가운데 잘못된 길로 들어선 불교를 배척하고, 고려말에 수입된 新儒學인 性理學을 국시로 설정한 것이 그 현저한 예이다. 조선조의 국시였던 성리학의 경우, 이미 중국에서는 사양화되어 거의 잊혀져가고 있었던 학문이었다.¹⁾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선조 창업의 중추적 역할을 했던 지식인들은 흠속을 버려진 옥을 찾아내듯, 성리학의 탁월한 학문체계 및 그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국가적 이데올로기로 삼은 것은 조선조의 행운이었다. 물론 성리학에 대해 부정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선 이같은 필자의 논의가 불만스럽게 여겨질 것이다. 그러나 15세기에 성리학 말고 어떤 학문이 있었는지를 생각해보면 불만의 정도가 완화될 것이다.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등 서구식 이데올로기는 당대에 물론 없었고, 천주교·기독교·회교 등 소위 고등 종교로 알고 있는 외래종교 또한 그 시대에는 없었다. 당시는 물론이고 21세기를 바라보는 현재 시점에서도 성리학을 능가할 만한 순수 학문은 없는 것이 아닌가 한다.

* 성균관대 교수

1) 朝鮮朝 開國 당시 中原을 차지했던 明朝는 性理學보다 陽明學 등에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울은 무게를 달아야 하고, 자는 길이를 재야 하며, 되와 말은 양을 가늠해야 한다. 저울로 부피를 가늠하고, 자로써 무게를 달고, 되로 길이를 잴다면, 그것은 망발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서구 및 동구식 척도를 가지고 반만년의 유구한 역년을 지낸 우리의 정통문화를 마구잡이로 난도질해온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금과옥조인양 사용하고 있는 서구와 동구의 척도는 그들의 문화를 평가하기 위해 그들 나라에 맞게 창출된 것이지, 우리의 문화를 평가하는 척도는 결코 될 수가 없다. 이는 마치 자로 무게를 달려고 하는 것과 동일하다. 우리의 문화가 서양식 잣대로 재어서 부합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싸잡아 봉건적 잔재라거나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단정하면서, 이같은 시도를 두고 진보요 선진이라고 강변해왔다. 연어가 자라 철이 들어 산란기가 되면, 북태평양을 우쭐거리며 헤엄치다가 母川으로 회귀하듯이, 우리도 이제는 한 세기간의 기나긴 外道를 청산하고 값지고 귀중한 우리의 본분으로 돌아올 시기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

반만년 우리의 學術史에 세계에서 최고의 위치를 차지했던 시기가 두 번 있었다고 필자는 믿고 있다. 그 하나는 新羅시대에 高僧大德이 범동양권에서 활약했던 7·8세기이고, 나머지 하나는 退溪·栗谷·南溟·河西 등이 활동했던 16세기이다. 전자는 佛敎哲學이고 후자는 性理學인데, 이 두 학문은 해당시대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에 있었다.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다는 것은 지난한 일이며, 또한 말할 수 없는 영광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같은 선대의 학술적 성과에 대해서,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무관심했다. 서구적 척도에 의한 민족사와 민족학술사의 평가가 빛은 당연한 오류이다. 불교철학과 성리학은 영국이나 불란서·미국·소련 등의 국가적 시각으로 본다면 이단에 불과할 것은 뻔하다. 이들 나라가 별가치없는 것으로 보는 것은 일리가 있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들 나라의 시각으로 우리의 찬란한 세계학술사적 업적을 폄하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이 중에서 특히 성리학에 대한 학술적 성과는 민족 학술사에 기념비적 성취였다.

이같은 정황을 감안할 때, 조선조가 국시로 채택한 성리학은 당시는 물론이고 지금도 세계에서 최고 수준에 있는 철학임이 확실하다. 성리학이 조선조에 끼친 긍정적인 점은 보려고도 하지 않고, 부정적인 면이 얼마나 어디에 숨겨져 있는가를 혈안이 되어 찾다가, 하나라도 발견되면 패재를 부르며 이를 대서특필하면서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고 자부했던 것이 학계의 일부 풍조가 아니었던가 한다. 조선조의 국시였던 성리학은, 성리학이 지닌 탁월한 가치와 논리체계를 인정받아서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직까지 성리학이 보수반동의 학문이고, 성리학을 집대성한 朱子(1130-1200)는 보수반동의 원흉이고 조선왕조 오백년의 역년을 병들게 한 학자로 치부하는 일부 지식인들의 견해는 마땅히 수정되어야 한다. 해방 이후 한국 사회의 지도급 지식인치고 조선왕조를 비판하거나 朱子를 비판하지 않은 사람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지어는 주자를 비판해야만 진보적 지식인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오해되었고, 주자를 정당하게 평가하는 지식인은 계몽이 덜된 이

상한 사람으로 평가되기가 예사였다.

조선조를 말할 때, 조선조의 국가이념이었던 性理學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고, 성리학을 말할 때 주자를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 성리학과 주자를 검토할 경우, 16세기에 기라성같이 등장한 退溪 李滉(1501-1570)과 栗谷 李珣(1536-1584)와 南溟 曹植(1501-1572)과 河西 金麟厚(1510-1560)를 배제하고는 논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선조를 오백년간 탄탄하게 이끌어왔던 선비를 말하고자 한다면, 그들이 在朝나 또는 在野 등 어디에 있었던 간에 성리학과 주자를 결부시키지 않고는 논의가 불가능하다.

주자가 집대성한 성리학을 국가의 통치이념으로 삼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의 생활이념으로까지 심화하여 詩作에까지 철저하게 원용했던 점을 전제로 하고 조선조 선비들의 詩意識을 검토할까 한다.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조선조 선비들이 주자학을 수입함에 있어서 단순한 복사 차원이 아니라, 조선조의 학술사상과 사회환경과 결부시켜 재창조코자 했던 점이다. 조선조 선비들이 주자의 학설을 카피하듯이 모방했다는 일부의 주장은 잘못된 인식이고, 선비들의 詩作 역시 중국의 시나 詩論을 그대로 모방하지 않았던 것은 물론이다.²⁾ 본고는 조선조 선비들의 시의식을 논함에 있어서, 이를 보다 선명하게 부각시키기 위해 朱子의 隱居地 武夷九曲의 勝景을 읊은 武夷權歌의 해석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 하겠다.

2. 朝鮮朝 선비들의 隱居와 朱子詩

조선조 선비들은 거의 모두가 詩人이었다. 시는 출세의 도구이자 선비들의 교양이기도 했다. 선비들은 대체로 중산층 이상의 사회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生業으로부터 해방되어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자연의 美景을 찾아 그곳에서 은거하기도 하고 또는 유람하면서 詩로써 이를 형상하기를 즐겨했다. 그러므로 선비들의 詩는 주제별로 분류한다면 대부분이 山水詩였다. 이같은 山水詩의 과다를 두고 당대에도 ‘吟風咏月’이라 하여 비판적인 시각이 많았다. 선비들이 實學을 숭상하지 않고 江湖를 유람하면서 시나 읊조리는 풍조를 못마당하게 여겼던 것이다.³⁾ 조선중기 즉 16·17세기는 歸去來 풍조가 선비들 사이에 만연해 있었다. ‘각박한 朝廷을 떠나 강호로 돌아가 성리학을 연구하자.’ 이것이 아마도 이 무렵의 보편화된 구호가 아니었던가 한다. 이같은 풍조가 일부 선비들에게만 국한되었다고 평가하기에는 그 상황이 너무나 到底했다. 어찌하여 선비사회에서 강호로 돌아가자고 하는 경향

2) 栗谷이 品格論을 수용함에 있어서 중국의 품격이 너무 번다하다고 비판하고, 八品格으로 종합정리하여 이를 후학들에게 詩作의 모범으로 삼게 한 예가 그것이다. (栗谷全書 卷之十三 精言妙選序)

3) 여기서 말하는 實學은 당시에는 經學 또는 性理學을 지칭했다. 성리학을 空理空論으로 매도하는 것은 잘못된 평가이다. 성리학이 공리공론이라면 서양철학 모두도 하나같이 공리공론이다.

이 일반화되었는지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었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先學과 大家들의 원인이명이 정치하게 진행되어 이미 학계에 정설로 굳어져 있다.⁴⁾

필자는 일찍이 선학들의 학설을 기반으로 하여 朱子의 武夷九曲 경영과 그의 은거지인 무이구곡을 형상한 10首의 武夷權歌의 영향도 막강했음을 밝힌 바 있다.⁵⁾ 주자는 벼슬길에서 좌절하고 고향 근처인 閩中의 武夷山으로 귀거래하여 隱屏精舍를 짓고 후학들을 가르치며 은거생활을 했다. 무이산중에서 강물이 아홉구비로 돌아가면서 형성된 절묘한 九曲景은 남부 중국의 명승지로 유명하다. 원래 이곳은 한족과 관계가 없는 閩族이나 혹은 그 이전의 종족과 관계가 있는 곳으로 道教사원이 곳곳에 설립된 方外의 땅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方外’는 儒家 아닌 모든 학문이나 신앙을 지칭했다. 본래 방외라는 개념은 유가에서 정의한 것으로 불교 도교를 위시해서 제자백가도 方外로 간주했다. 그런데 방외에 대한 이같은 본질적 개념이 잘못 인식되어 우리나라에서는 고려나 조선의 왕조 및 사회의 비리나 모순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그들이 비록 유가일지라도 이를 가리지 않고 모두 방외로 규정하였고, 이같은 잘못된 정의가 아직도 통용되고 있는데, 이는 시정되어야 할 사항중의 하나이다. 주자는 方外地域인 무이구곡에 들어가서 지방의 학생들을 모아서 유학을 교육시켰다. 퇴계는 주자와 그가 경영한 무이구곡의 은병정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늘이 주자를 태어나게 했지만, 세상에 그 뜻을 펴지 못하여 마침내 大隱屏 아래에 은거하게 되어 靈仙窟宅의 方外의 지역을 鄒魯의 道德 고장으로 변모시켰으니, 하늘의 뜻은 진실로 헤아릴 수 없다. 그것은 일시적으로 천하의 불행이었던 대신, 무이산으로서는 행운이었으며 斯文으로서도 百世의 大幸이 아닐 수 없다.⁶⁾

퇴계는 정계에서 득의하지 못하고 非儒家的 方外信仰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무이산에 들어가 추노의 도덕적 고장으로 승화시킨 주자의 은거생활을 예찬했다. 주자의 이같은 은거를 은연중 16세기 조선조 선비들이 내심으로 동일시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는 부분이다. 즉 그들 선비들도 고향으로 돌아가 서당이나 서원을 열어 후학들을 훈도하여 주민들 중에서 특히 양반가의 자제들을 유가적 지식인으로 만들려는 강한 의욕이 내재되어 있었다. 이는 비단 퇴계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율곡·하서·남명 등 당시 석학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현상이었다. 주자의 정치적 실의가 유학에게는 도리어 다행이 되었다는 퇴계의 인식은 당쟁으로 인해 좌절당한 선비들의 경국제민의 의지를 위로받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 선

4) 陶南 조운제와 林下 최진원의 정치한 연구가 그 대표인데, 당쟁하의 명철보신과 토지를 기반한 경제적 안정 등이 대표적 이유라고 논정했다.

5) 李敏弘: 士林派文學의 研究(螢雪出版社, 1985).

6) 李滉: 退溪全集 卷四十三 李仲久家藏武夷九曲圖跋 天生我朱子 不得有爲於天下 卒至卷懷棲遯於大隱屏下 使夫靈仙窟宅之地 變而鄒魯道義之鄉 天意固有所未可知也 而彼一時天下之不幸 豈不爲茲山之幸也耶 又豈不爲百世斯文之大幸也耶.

비들은 정치적 실패의 아픈 마음을 달래며, 경제적 기반이 있는 향리로 돌아가 시냇물이 돌아가는 美景을 찾아서, 주자의 은거지 무이구곡을 연상하고 거기에 빗대어 ‘一曲 二曲 …… 九曲’으로 명명한 후 친구들과 또는 제자들과 어울려 멋진 강호생활을 영위했다. 그들은 생활에 불편이 없을 만큼의 토지와 노비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벗들과 어울려 강호를 탐승하면서 한시를 지었고, 강호에 노닐면서 지은 시이기 때문에 그들 작품의 대부분은 山水詩였다.

山水詩가 음풍영월이라는 비난을 받았다는 것은 앞서도 말한 바 있다. 따라서 이같은 비난을 피하기 위해 산수시에 이념적 托意를 시도했고, 탁의한 이념은 물론 성리학이었다. 주자가 무이산 구곡에 은거하여 동학 및 제자들과 구곡을 유람하면서 함께 즐길 武夷權歌 10首를 지은 사실을 발견하고 선비들은 열광해마지 않았다. 주자는 많은 시를 남겼는데, 유독 주자의 그 많은 시들 가운데서 그가 스스로 ‘戲作’이라고 표현한 무이도가 십수를 그처럼 열광하고 애호했던 이유는, 조선조 선비들의 귀거래 풍조와 강호에서의 은거생활과 긴밀하게 접맥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회작이라고 한 이유는 성리학적 托意가 없는 뱃놀이를 위주로 한 산수시임을 작자 자신이 밝힌 것으로 해석되고, ‘權歌’라는 뜻 역시 ‘뱃놀이하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의미이다. 주자가 이 시를 지은 연대는 1184년(淳熙 甲辰 中春) 2월이었지만, 그로부터 약 400년 후 조선조 선비들에 의해 재발견되어 널리 인구에 회자되었다. 무이도가는 단순하게 입에서 입으로 읊조려진 것만이 아니라, 고차원의 비평도 수반되어 우리나라 산수시 계열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 무이도가가 朱子大全과 더불어 조선조에 수입되어 선비들에게 읽힌 이후, 조선조 말기까지 次韻이 계속되고 그 主題意識에 대해 간단없이 논란된 이유는 이미 앞에서 말한 바 있다. 도대체 이 시가 어떤 내용을 형상했기에 선비들에게 그와 같은 사랑을 받았는지, 오늘날의 안목으로 보면 이해가 안되는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논의의 편의상 그 전문을 소개하겠다.

武夷山 위에는 仙靈이 어리어 있고
산 아래 차가운 시내 구비구비 맑다.
그 중에 絶景을 찾고자 한다면
權歌소리 한가롭게 들리는 그 곳.

武夷山上有仙靈
山下寒流曲曲清
欲識箇中奇絶處
權歌閑聽兩三聲

一曲 시냇가에서 釣船에 오르니
幔亭峯 그림자 晴川에 잠겨있네.
虹橋 끊어진 후 소식이 돈절했는데
萬壑千巖만 푸른 내로 싸였구나.

一曲溪邊上釣船
幔亭峯影蘸晴川
虹橋一斷無消息
萬壑千巖銷翠煙

二曲에 우뚝 솟은 玉女峯
꽃 꺾고 물가 임했으니 늘위한 단장인가.

二曲亭亭玉女峯
插花臨水爲誰容

7) 朱熹: 朱子大全 卷九 淳熙甲辰中春 精舍閒居 戲作武夷權歌十首 呈諸同遊 相與一笑.

道人은 다시 陽臺夢 꾸지 않고
신명나게 앞산에 드니 푸르름 몇 겹인가.

道人不復陽臺夢
興入前山翠幾重

三曲에서 그대가 본 架壑船
노를 멈춘지 몇해인지 모르겠네.
桑田이 碧海되도 이와 같거늘
물거품과 風燈을 말해서 무엇하랴.

三曲君看架壑船
不知停櫂幾何年
桑田海水今如許
泡沫風燈敢自憐

四曲 동서에 우뚝 솟은 두 바위
岩花 이슬달고 울긋불긋 피었네.
金鷄 울음 그치자 인적이 없고
空山에 달빛 가득 연못엔 물이 가득.

四曲東西兩石巖
巖花垂露碧蓊蓊
金雞叫罷無人見
月滿空山水滿潭

五曲 산 높아 雲氣가 짙고
오랜 안개비에 平林이 어둡다.
숲 속에 객 있어도 아는 이 없으니
어와 소리에 萬古心 어렸도다.

五曲山高雲氣深
長時烟雨暗平林
林間有客無人識
欸乃聲中萬古心

六曲 蒼屏峯 碧灣을 들렀고
띠집 사립문 종일 닫혀있네.
객이 와 샅대 의지하니 岩花가 지는데
猿鳥는 놀라지 않고 봄뜻만 한가하다.

六曲蒼屏逸碧灣
茅茨終日掩柴關
客來倚櫂巖花落
猿鳥不驚春意閑

七曲에서 배를 저어 碧灘에 올라
隱屏 仙掌 또다시 돌아보네.
어여쁘다 어제밤 봉우리에 내린비
飛泉에 합쳐지니 얼마나 차가울까.

七曲移船上碧灘
隱屏仙掌更回看
却憐昨夜峯頭雨
添得飛泉豈道寒

八曲의 안개 바람에 흩어지니
鼓樓岩 아래의 물결 굽이쳐 돌아간다.
이곳에 佳景이 없다 말하지 말라
이로 인해 유람객 오지 않을까 두려우니.

八曲風烟勢欲開
鼓樓巖下水縈洄
莫言此處無佳景
自是遊人不上來

九曲이 다하려니 시야가 툭 트이고
뽕과 삼에 비이슬 平川이 보인다.
漁郎은 다시 桃源 가는길 찾지만
바로 여기가 인간의 별천지이다.

九曲將窮眼豁然
桑麻雨露見平川
漁郎更覓桃源路
除是人間別有天

위에 인용한 무이구곡시는 일견 특별한 내용이 없는 단순한 山水詩의 하나로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왜 이 연시가 것처럼 조선조 선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400여년간 경전처럼 애호되었는지가 궁금하다. 만일 주자의 시가 아니었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시가 수백년간 향수되었을까 하는 의문을 품어볼 수도 있다. 조선조 선비들은 이 시를 두고 크게 두가지 상

반된 견해를 갖고 있었고, 서로 다른 견해에 대해서 수백년간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성리학의 理氣說을 가지고만 수백년간 논쟁을 벌인 것이 아니라, 주자의 위의 시를 두고도 수백년간 논쟁을 벌인 사실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다. 이 시에 대해 선비들의 견해가 달랐던 주된 내용은 주제 의식에 관한 것으로, 退溪나 高峯 奇大升을 중심으로 한 선비계열은 因物起興의 山水詩로 이해한 반면, 河西와 浦渚 趙翼(1579-1655) 계열 선비들은 入道次第를 형상한 造道詩로 간주하였다.

주자 무이도가에 대한 이같은 상이한 주제 파악은 곧바로 조선조 선비들의 詩意識과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목의 대상이 된다. 조선조 선비들에게는 일찍부터 道學을 형상한 ‘造道詩’가 시의 정통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과, 이와 반대로 文以載道論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시는 抒情이 중심이 되는 因物起興이 위주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공존하고 있었다. 사실 이름이 후세까지 알려진 유명한 시인은 모두가 인물기흥적 서정을 근간으로 시작 활동을 했던 선비들이었다. 이들 두파의 시인군은 그들 각자의 시의식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자의 시를 원용한 인상이 짙다. 주자의 시 중에서 그들의 江湖生活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무이도가의 주제에 대한 문제는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진일보하여 무이도가의 주제 의식과 形象意識은 조선조 선비들의 시의식에 방향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수백년간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성격을 같이 하는 시인군의 詩論으로서 계승되었다.

‘因物起興’은 말 그대로 事物과 심성이 접촉하면 興趣가 발생하는데, 그 발생한 흥취가 시로 형상되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말한 사물은 바로 주자가 은거했던 武夷九曲의 江湖이다. ‘入道次第’는 주자가 형상한 武夷權歌 10수는 무이구곡의 미경을 시로써 표현했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사실은 그 美景을 媒體로 하여 性理學의 입문과 발전 및 성취의 단계를 형상했다는 시각에 대한 표현이다. 인물기흥과 입도차제의 시각은 주자시 무이도가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조 선비들의 한시 전부에 해당되는 시의식의 좌표로 기능했다. 시의 주제는 道學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시의식의 발로가 ‘입도차제’라면, 도학은 무시할 수 없지만 시는 어디까지나 서정이 배제되어서는 안되므로 사물에서 얻은 흥취를 형상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인식이 ‘인물기흥’이다. 인물기흥에서 ‘興’은 詩經 ‘比·興·賦’의 흥과도 무관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흥은 주제 의식과 함께 형상의식과도 접맥된 美學的 용어이다.

이같은 당시 詞壇의 여러 정황을 참작컨대 조선 중기 선비들의 시의식의 일단은 주자시를 통하여 검색이 가능하다고 필자는 믿는다. 따라서 주자의 강호생활을 형상한 무이도가 십수중에서 ‘一曲詩’와 ‘三曲詩’에 한정시켜 그들의 詩意識을 밝혀볼까 한다.

3. 武夷權歌와 載道論

주자는 무이도가의 서문에서 ‘淳熙(南宋 孝宗의 年號) 甲辰(1184) 2월 精舍(武夷九曲에 있는 隱屏精舍)에 한거하면서 무이도가 10수를 가벼운 마음으로 창작하여 함께 유람하는 여러 사람들에게 주어서 더불어 웃었다’라고 했다. 무이도가는 조선 중기 선비들의 심각한 견해와는 달리 戲作된 시로 인식될 소지가 있다. 희작이라고 작자가 스스로 표현한 것은 자기 작품에 대한 겸양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필자가 무이구곡을 방문해본 결과 위의 인용된 주자의 서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무이도가를 제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퇴계의 말대로 완성된 작품의 경우, 시인의 ‘本意’나 ‘初意’와는 달리 독자가 읊조리고 감상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작자가 의도하지 않았던 깊고도 고매한 주제를 터득할 수도 있다는 사실도 참고가 된다.⁸⁾ 일단 완성되어 세상에 나온 작품은 작자의 것이 아니라 독자의 소유이고, 그 작품의 주제는 일정한 한계 안에서 임의로 해석할 수 있다는 현대 評壇의 인식이 이미 16세기 퇴계에 의해 제기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무이도가가 본래 학문의 入道次第를 읊은 것이 아니고, 이를 천착하여 도학의 성취과정을 형상한 것으로 해석한 것은 건강부회이며, 이렇게 인식하는 것은 작자인 주자의 ‘本意’에서 벗어난다고 퇴계는 말했다. 그러나 독자가 諷詠하는 과정에서 도학을 공부하는 사람의 깊고 얕음과 높고 낮음의 뜻으로 파악해도 무리가 없다고 퇴계는 부언했다.

퇴계가 무이도가의 평석에 대해서 이같은 견해를 밝힌 것은 당시 선배들간에 무이도가의 주제파악에 대한 심각한 논란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무이도가의 주제의식에 대해 논란이 심각하게 전개된 이유는, 조선조의 대표적 詩論인 文以載道論과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조 500년간 詞壇에서 好惡를 떠나서 문이재도론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중기를 지나 후기로 내려오면 ‘道’에 대한 개념도 얼마간 변이되긴 했지만, 성리학적인 理라는 인식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16세기 선비들의 무이도가 평석에 관한 그같은 활발한 논의는, 결국 문이재도론이 문학작품에 어떻게 적용되었으며 구체화되고 있었는지를 논정하는 문제였다. 무이도가의 평석에 대한 토론은 16세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17세기에 들어와서 더욱 활발하게 펼쳐졌고, 또 17세기에 끝나지 않고 18·19세기를 지나 20세기 초반까지 줄기차게 次韻과 더불어 계속되었다.

조선조에서 성리학에 국한되지 않고 문학의 경우도 理氣論과 함께 黨脈에 따라 독특한 특징을 유감없이 발휘했는데, 그 실례로서 南人文學과 北人文學 및 老論文學·少論文學을 들 수 있다. 이들 문학에 대한 연구는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착수

8) 李滉: 退溪全書 卷十三 書 答金成甫別紙, 大抵九曲十絶 並初無學問次第意思 而註者穿鑿附會 節節牽合 皆非先生本意 …… 而讀者於諷詠玩味之餘 而得其意思超遠 涵畜無窮之義 則亦可移作造道之人 深淺高下 抑揚進退之意看.

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⁹⁾ 연구에 회자되었던 특정 歌謠나 漢詩가 선별되어 같은 당맥으로 분류된 선비들간에 애호된 예가 허다한데 반해, 무이도가는 남인이나 노론·소론 등을 막론하고 공유된 이유는 이 작품이 주자의 시이고, 그 내용이 당맥을 초월하여 조선조의 모든 선비들이 동경했던 은거생활을 형상했기 때문이다.

무이도가는 序詩를 비롯하여 一曲의 경물을 묘사한 一曲詩를 출발점으로 하여 ‘二曲·三曲……九曲’ 등을 장별로 나누어서 각각 형상한 七言絶句로 구성된 10수의 연작시이다. 九曲詩 전부가 학자들에 따라 그 해석이 달랐지만, 지면관계상 전부를 말할 수 없고, 특히 문제가 된다고 인정되는 一曲詩와 三曲詩를 중심으로 당맥을 비롯한 갖가지 요인에 의해 나눠진 선비집단들의 변별되는 詩意識을 밝히고자 한다.

1) 虹橋一斷의 해석 視角

朱子가 은거하면서 隱屏精舍를 열어 후학을 가르쳤던 武夷九曲은 강물이 아홉구비로 돌아가는 지형이었는데, 그 첫째가 一曲이다. 무이산 계곡을 굽이돌아 흐르는 강물은 一曲에서 九曲으로 역류하는 형상을 취하고 있다. 九曲의 도달이 도학의 완성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강물이 역류한다는 것은 학문의 완성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一曲詩는 序詩 다음에 이어져 武夷九曲景 중 초입 一曲의 승경을 묘사했다.

一曲 시냇가에서 釣船에 오르니
幔亭峯 그림자가 晴川에 잠겨있네.
虹橋 끊어진 후 소식이 단절했는데
萬壑千巖만 푸른 내로 싸였구나.

一曲溪邊上釣船
幔亭峯影蘸晴川
虹橋一斷無消息
萬壑千巖銷翠煙

위 ‘一曲詩’는 퇴계가 앞서 말한대로 一曲의 경물을 묘사할 敍景的 山水詩에 불과하다. 주자의 모티프 역시 일곡의 풍광을 그대로 묘사한 단순한 서경적 산수시를 창작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河西를 필두로 한 일군의 조선조 선비들은 이 시의 주제를 道脈(儒家的 脈絡)이 끊어진 지 千年이나 된 사실을 주자가 개탄한 것으로 해석했다.¹⁰⁾ 河西가 이렇게 해석한 근거는 ‘무지개다리(虹橋) 한번 끊어진 후 소식조차 단절되었다’라는 귀절에 있다. 실제로 무이곡곡의 홍교는 일곡에 있는 다리의 명칭이기도 하지만, 옛날 신선 武夷君이 만정봉에 연회를 베풀 때 마을 사람들을 불러오기 위해 놓았다는 전설상의 무지개 다리를 지칭한 것이기도 하다. 주자는 일곡시에서 만정봉에 얽힌 전설을 시로 형상했을 따름이지, 다른 뜻은 없었다. ‘일곡에서 배에 올랐다’라는 귀절을 두고 학문의 길로 처음 들어섰다는 의미를 함

9) 李敏弘: 朝鮮中期 詩歌의 理念과 美意識 (成大出版部, 1993)에서 당맥과 문학의 상관성에 대해서 검토한 바 있다.

10) 金麟厚: 河西全集 卷六 詩, 解一曲詩 道喪千年聖路湮 中天白日晦精神 烟光幸帶斜陽照 露月東來意更新.

축한 것으로 해석한 浦渚의 경우도 高峯의 평을 빌린다면 천착부회에 불과하다. 도맥이 단절된지 천년이나 되었음을 탄식했다고 해석한 것 역시 건강부회로써, 사실은 아득한 옛날 무이군이 마을사람들을 불러 연회를 베풀면서 산해진미로 대접하고 天樂을 연주하여 흥을 돋구어 은성한 회합을 가진 후 연회가 파하고 마을 사람들이 흥교를 타고 내려가자, 무지개 다리를 끊었다는 전설을 시적으로 형상했을 따름이다.

河西는 천년동안 도맥이 끊어진 것을 주자가 이 시를 통하여 탄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서가 말한 千年은 孟子가 서거한 후부터 朱子가 태어나기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河西와 河西系 선비들의 이 시에 대한 이같은 해석 역시 朱子의 本意와는 거리가 아득히 멀다. 高峯은 一曲詩를 평석함에 있어서 河西 등이 파악한 入道次第의 시각을 부정하고 무이구곡의 一曲景을 묘사한 因物起興일 따름이라고 해석하면서, ‘어찌 道가 파괴된 것을 탄식한 것이겠느냐, 다만 경치를 만나서 우러난 감동을 형상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했다.¹¹⁾ 退溪는 중국에서 발간된 ‘武夷山志’류의 서적들을 거의 통독하고 있었는데, 당시 어떤 경로로 이들 책들을 구득하여 정밀하게 탐독했는지 놀라움을 금치못한다. 퇴계는 그가 次韻한 閒讀武夷志 次九曲權歌韻十首 중에서 一曲詩를 다음과 같이 읊었다.

一曲에서 배를 저어 九曲을 향하니	我從一曲覓漁船
天柱峯은 의연히 냇물을 굽어본다.	天柱依然瞰逝川
한번 眞儒가 吟賞한 다음부터	一自眞儒吟賞後
同亭에는 다시 風烟이 일지 않았네.	同亭無復管風烟 ¹²⁾

위 退溪 차운시에 나오는 ‘同亭’은 옛날 武夷君이 마을 사람들을 天柱峯(天王峯) 정상으로 불러 모아 神仙과 世俗人이 어울려 풍악을 연주하며 즐겼는데, 이를 영광스럽게 여긴 마을 사람들이 신선들과 함께 있었다는 감격을 오래 간직하고 기념하기 위해 ‘同亭(함께 있었던 정자라는 뜻임)’을 지었다는 전설이 담긴 정자이다. ‘眞儒가 음상한 후 同亭에 風烟이 끊겼다’라는 退溪의 표현은, 朱子가 무이구곡에 와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시를 지은 다음부터 道家的 유풍이 소멸되고 儒家風이 진작되었다는 사실을 노래한 것으로 생각된다.

退溪 高峯 등 南人系 선비들과는 달리 老論系 선비인 谷雲 金壽增(1624-1701)은 谷雲九曲次晦翁武夷權歌韻에서 다음과 같이 읊었다.

배를 저어 힘겹게 一曲洞天으로 들어가니	一曲難容入洞船
복사꽃 만발한 별천지가 열렸네.	桃花開落隔雲天
길 끊긴 울창한 숲속 오는 이도 드문데	林深路絕來人少
어디선가 山家의 개짖는 소리 들린다.	何處山家有吠烟 ¹³⁾

11) 奇大升: 高峯全集 往復書, 如一曲曰 虹橋一斷無消息 萬壑千巖銷翠烟者 分明若有意焉 然亦豈以是爲悼道之溷廢而發哉.

12) 李滉: 退溪全書 卷一 詩.

그는 무이구곡을 의방하여 ‘谷雲九曲’을 경영했으며, 무이도가를 차운하여 은거지인 곡운 구곡을 시로 형상했다. 谷雲의 一曲詩에서는 儒家的 부회나 천착은 전혀 없고, 道家的 무릉도원을 연상케 하는 시상이 주조를 이루고 있다. 17세기를 지나면서 老論系의 일부 선비들은 載道論을 비판하면서 그들의 서정영역을 道學 일변도에서 이탈시켜 정감의 세계로 확장해 간 경향이 현저하게 나타났다.

2) 架壑船의 寓意

武夷權歌 三曲詩는 化石으로 남은 무이산 지역의 유구한 역사가 점철된 것으로써, 조선조 선비들에게는 매우 난해한 시로 평가되었다. 그들이 이 三曲詩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문은 ‘架壑船’이라는 단어였다.

三曲에서 그대가 본 架壑船 노를 멈춘지 몇해인지 모르겠네. 桑田이 碧海됨도 이와 같거늘 물거품과 風燈을 말해서 무엇하라.	三曲君看架壑船 不知停櫂幾何年 桑田海水今如許 泡沫風燈敢自憐
--	--

가학선은 무이구곡 절벽에 살았던 원주민의 주거지 겸 묘이다. 그들은 깎아지른 듯한 낭떠러지 바위틈에서 살다가, 가족 중 한 사람이 죽으면 살고 있는 암혈 주거지에 배모양의 관을 만들어 그속에 시신을 안치한 후 집을 옮기는 풍속을 지녔다. 관의 모양이 배인 것은 사자와 사자의 영혼이 배를 타고 그들이 꿈꾸었던 이상세계로 간다는 염원이 어린 장례의식이었다. 지금도 사람이 도저히 오를 수 없는 무이산 절벽 곳곳에는 배모양으로 엮어만든 나무구조물이 남아있다. 수백년 또는 천여년이 지났는데도 상당부분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은 신비한 일로 인식되고 있고, 학계에서는 이를 ‘船棺葬’의 유구로 이해하고 있지만, 중국학자들도 그 실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설이 없다. 우리나라 巫俗에서 풀이나 종이로 배를 만들어 죽은 자의 영혼을 강이나 바다로 흘려보내는 것도 상통하는 면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같은 내력을 지닌 ‘架壑船’을 두고 조선조 선비들은 그 실상을 알지 못한 채, 河西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溝壑心으로 해석하여 志士는 언제나 修身에 힘써서, 부정부패와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는 모티프를 주자가 시로써 형상한 것이라고 부연했다.¹⁴⁾ 浦渚는 ‘옛날 대홍수로 인해 배가 떠올라 높은 곳에 이르렀다가 물이 빠지자 그 자리에 남은 것’으로 해석하고 유구한 시간의 흐름을 빗대어 포말 풍등같은 인생들이 부질없이 명리에 탐닉하지 말

13) 金壽增: 谷雲集 附錄 谷雲九曲次晦翁武夷權歌韻 一曲詩.

14) 金麟厚: 河西全集 卷六 詩 吟示景范仲明 解三曲, 志士恒存溝壑心, 明昏相代古猶今 修身靜俟無他念, 不比空投餓虎林.

고 ‘致知力行’할 것을 주자가 강조한 詩라고 말했다.¹⁵⁾ 선입견을 버리고 위에 인용한 주자의 三曲詩를 보면 載道的 寓意는 전혀 없는 듯하다. 주자는 무이구곡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얽힌 전설과 역사를 소상하게 알고 있었을 것이다. 혹시 옛날 閩과 관계있는 원주민들의 저승에 대한 부질없는 바램이 얼마나 속절없는 것인가를 풍자하면서 삶의 유한함을 노래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高峯은 河西·浦渚와는 달리 당시 詞壇에 유포되고 있던 權歌詩註의 해석대로 ‘三曲架壑船’은 ‘진리를 위해 목숨도 버려야 한다는 의지’를 읊은 것으로 三曲詩를 해석하는 것은 오류라고 단정했다. 그는 계속해서 생존하기 위해 정의를 손상시키는 것은 學者들의 옛부터 있어온 환란인 터에, 학문을 시작한 초기에 쉽사리 ‘舍生之旨’를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부언했다.¹⁶⁾ 高峯은 무이도가 三曲詩를 三曲에 얽힌 전설이나 역사적 사실을 주자가 시속에 형상하면서 포말 풍등에 준하는 인생에 대해서 돌이켜 본 정감적인 서정 정도로 이해한 듯하다. 丈巖 鄭澐(1648-1736)는 栗谷의 高山九曲歌와 무이도를 합쳐서 三曲詩를 次韻한 적이 있는데, 星湖 李瀾(1681-1763)처럼 ‘古人은 멀리 있고 흐르는 세월은 멈추지 않으니, 때를 맞추어 학문에 힘써야 함’을 노래한 작품으로 보지 않았다.¹⁷⁾ 장암은 三曲詩를 아래와 같이 서정적으로 차운했다.

三曲은 듣건데 架壑船을 읊었다고 했는데 노를 저어 올라가며 몇해인지를 물었다. 무심한 산새는 상진벽해를 말하는듯 가련하게도 오르내리며 마냥 지지귀고 있구나.	三曲曾聞詠壑船 上游移權問何年 山禽解說滄桑事 下上其音正可憐 ¹⁸⁾
--	---

그의 이같은 차운을 참작컨대 丈巖은 三曲詩를 학문에 전념한다거나 수신을 힘쓰라는 등의 교훈적 寓意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았다.

退溪·河西·浦渚·星湖·丈巖·谷雲 등의 각기 상이한 무이도가 평석 시각의 특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그 본산지인 중국에서는 어떻게 해석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무이도가는 중국에서도 宋代 이후 明代를 지나 清代까지 많은 시인들이 화운을 했지만, 조선조의 선비들처럼 載道的 시각으로 무이도가를 이해한 예는 거의 없었다. 무이도가를 재도적으로 해석했다고 해서 그것을 단점으로 보거나 폄하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고, 오히려 조선조 사단이 중국과 변별되는 특징으로 보는 것이 순리이다. 그 한 사례로 明代의 劉信이 차운한 三曲詩를 들겠다.

15) 趙翼: 浦渚集 卷二十二 武夷權歌十首解, 架壑船想古時大水舟泛高處 水落仍委於地 歲久朽敗也 …… 唯 有致知力行 修身俟死 是爲究竟法耳 亦此意也.

16) 奇大升: 高峯全集 往復書 卷一 別紙武夷權歌和韻, 三曲架壑船 爲寓舍生之旨 …… 舍生而害義者 固學者之通患也.

17) 李瀾: 星湖先生全集 卷五十六 書武夷九曲圖, 次謂昔人已遠 流年不住 宜勉力及時也.

18) 李珣: 栗谷全書 附錄續編 高山九曲詩.

三曲 仙巖에 걸려 있는 架壑船
 비바람에 씻긴지 몇해이던고.
 古今이 함께 이갈음을 보니
 物是人非가 진실로 가련하네.

三曲仙巖有架船
 櫛風沐雨幾經年
 古今共看長如此
 物是人非真可憐¹⁹⁾

중국측 士인들의 무이도가 차운은 대체로 위와 같은 경향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三曲 낭떠러지 암혈에 있는 가학선이 비바람에 씻기면서 천년내외를 견디며 지금까지 남아 있음을 감탄하면서 여기에 비해 인생 백년의 짧음을 슬퍼하는 서정적 내용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武夷山志에 의하면 무이도가를 차운한 사람이 꽤 많지만, 載道的으로 해석한 예는 거의 없었다. 宋의 方岳, 明의 劉信·張時微·黃仲昭·鄭善夫·馬豹蔚·江以達 등과 淸의 張坦·來謙鳴·僧明欽·王復禮·董天工 등 수많은 詞人들의 차운 역시 조선조의 하서·포자·성호 등의 평석과는 상이하다. 동일한 주자의 작품을 두고 이를 차운함에 있어서, 그 주제파악과 평석이 이와 같이 판이한 사실은 흥미를 끈다. 주자시의 수용시각이 조선조와 중국측 사인들간에 현격한 견해차가 있었다는 것은, 결국 詩意識이 달랐음을 의미하고, 나아가서는 조선조 선비들이 중국을 일방적으로 모방하지 않고 독창적인 詩論을 향유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조선조 선비들의 주체적 시의식의 발로로 예찬되어야 한다.

4. 結 言

지금까지 朱子の 武夷權歌 十首 중에서 一曲詩와 三曲詩를 중심으로 조선중기 즉, 16~17세기 士인들의 評釋 視角을 검토하면서 그들의 詩意識을 살펴보았다. 구체적 작품의 평석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조선조 선비들의 시의식의 일단이 명료하게 밝혀졌다고 생각된다. 조선조의 경우 高峯 奇大升이 정의한 대로 크게는 ‘因物起興’과 ‘入道次第’의 변별되는 두 시각이 있었지만, 미세하게는 또 다른 면이 존재했음이 확인되었다. 이와 곁들여 무이도가의 본산지인 중국측 士인들의 시각과 대비시켜 조선조와 중국이 여하히 차별되었는지를 검토했다. 중국의 사인들이 주자의 무이도가를 단순한 ‘山水詩’로 보려고 했다면 조선조 사인들은 ‘造道詩’로 인식하려는 경향이 강했음도 증명되었다. 文以載道的의 시의식이 중국에서 발원되었지만, 재도론을 완성한 것은 조선조로 단정해도 무리가 아니었다. 문이재도론은 그것이 지닌 長短이나 好惡를 떠나, 이같은 主題意識이 조선 중기 詞壇의 주류였던 것은 사실이다.

조선조 사인의 시의식의 흐름에는 문이재도론이 근간으로 작용했지만, 黨脈도 영향을 미쳤다. 南人은 南人끼리 北人은 北人끼리 西人은 西人끼리 老少論은 老少論끼리 다방면에 걸

19) 董天工: 武夷山志 卷之四 權歌和韻.

쳐, 그들이 소속되지 않은 다른 당색의 인물들을 배제하고, 同黨끼리 주로 어울렸기 때문에 詩意識에도 동질성을 갖게 되었을 것은 충분히 예상된다. 무이도가의 경우만 봐도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당맥에 따라 유사한 입장을 취했다. 退溪와 高峯, 河西와 浦渚, 丈巖과 谷雲의 견해가 유사한 것도 실례가 된다. 곡운과 장암은 老論이고 퇴계와 고봉은 南人이다. 문학에서조차 당맥을 부각시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나라는 반문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있는 것은 있다고 긍정해야만 문제가 해결되지, 있는 것을 없다고 얼버무리는 것은 문제의 호도이지, 해결은 아니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조선중기 士人(선비)들의 시의식의 갈래는 하나가 아니라 몇 갈래의 유파가 있었음을 밝혔다. 유파가 있었다는 사실은 자랑할 일이지 부끄러운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단순성보다 다양성이 훨씬 모든 면에 걸쳐 우월하기 때문이다. 단순성은 단세포인 아메바와 같아서 번식도 빠르지만 소멸도 순식간이다. 조선중기 士人群의 詩意識이 천편일률의 아니고 몇 갈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천양하면서 본고를 마무리한다.